



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Newsletter



Volume 60 February 2005

음식으로 이해하는 광역토론토 문화 - 2005년 새로운 프로젝트

한인 여성회와 토론토 한인회는 신규 이민자들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하여 '음식으로 이해하는 광역토론토 문화(Understanding G.T.A. and Its multiculturalism through Food)' 프로젝트를 United Way의 지원으로 실시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슈퍼마켓 견학을 통한 다양한 식품에 대한 정보 습득, 건강하고 경제적인 음식 선택을 위한 지식 증진, 음식을 통한 광역토론토 문화 이해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로 주인의식을 증진하여 정착을 빨리 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민은 그 자체가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며 재정적 어려움, 불확실한 위치, 가족들과의 헤어짐, 주부의 정신 건강 등을 악화시키므로써 여성들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기도 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므로써 사회적 고립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부터 이민 가족의 주요 부양자중의 한 사람인 어머니가 자신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웰빙을 위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적응을 하도록 하고 식생활에 대한 어려움의 부담에서 해방되도록 하며, 공동생활에 대한 이해와 타 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 등을 없애, 토론토의 다문화화를 이해하여 이민자로서 사회적 고립에서 탈출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안정된 정착과 아울러 캐나다 사회에 능동적인 동참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슈퍼마켓 견학, 타민족 전통시장 견학, 요리교실, 세미나, Food Bank와 Soup Kitchen에서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매월 1회 노스욕센터 지하철역과 인접한 Empress 내의 Loblaws에서 슈퍼마켓 견학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참가하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다른 활동 또한 월별로 계획되어 준비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규 이민여성들이 격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아울러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신규 이민자의 부적응 발생율을 낮추는 가운데 다문화 사회에서의 적응 증진을 유도하고 여성의 자존감 향상과 아울러 신규 이민 여성의 빠른 정착을 돕고, 나아가 가정의 안정을 갖게 하고자 한다. 많은 이민 가정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강영옥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 담당자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제 21 차 정기 총회(Annual General Meeting)

올해 20 주년을 맞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정기 총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시간: 2005년 6월 23일 목요일 오후 6:00

장소: 339 Bloor St. West 2층 레그레이션 홀

차 례

1면	새 프로젝트 소개
2면	여성회 프로젝트
3면	주요행사 및 정규프로그램
4면	회장 보고
5면	궁금합니다
6면	여성회 소식



유방건강 프로그램

- 유방암 지원 그룹모임을 하고...-

지난해 11월 19일에 유방 건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방암 지원 그룹"을 통해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으시거나 받으셨던 여성분들과의 만남을 캐나다 한인 여성회에서 가졌다.

여성회가 이 모임을 시작한 이유는 주류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인 여성분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의 정보 및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없이 한인 여성분들끼리 모여 마음껏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하면서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그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모임을 통해 유방암에 관한 정보도 나누고 서로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예정된 2시간을 훨씬 넘게 모든 분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이야기들이 솔직하고 꺼리낌없이 나뉘었다. 처음 모임에 참석하기를 망설였던 분도 모임 후에는 편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며 이런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셔서 보람도 느꼈다. 끝날 때에는 서로의 연락처도 나누고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여성회는 앞으로 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한국어로 된 책자를 만들고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다. 아주 작은 발자국을 처음 띄웠지만 이를 통해 많은 한인 이민자 여성들이 캐나다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최정희 유방암 건강 프로그램 담당자

유방암 워크숍 일정

- 2004년 11월 19일 수도여고 동문회
- 11월 21일 오사와 한인 장로교회
- 11월 28일 알파 한인 연합교회
- 2005년 3월 20일 본 한인 장로교회 예정

온타리오 법무부, 피해자 서비스부 지원의 가정폭력 지역 프로그램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종교 단체의 역할 -

8개월전 여성회는 교계 지도자들을 위한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세미나를 계획했다. 그 후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정보 수집과 가정폭력 예방정보를 담은 한글/영문 원고 작성을 거쳐 한글/영문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트레이닝할 내용이 많아 2시간씩 2회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번에 4시간의 세미나도 가능하지만 예상대로 교회 지도자들은 2시간씩 2회에 걸쳐 하는 방식을 택했다.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몇몇의 교계지도자들과 만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관심을 유도했다. 처음에는 교계의 참여가 쉬운 듯이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을 겪었다. 목회자들은 목회일로 많이 바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반대로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가정폭력이 없다고 간단히 말씀하신 분도 계셨다.

최근 빌라델비아 한인장로교회에서 14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2시간씩 2회에 걸친 세미나를 마쳤다. 3월 4일에는 Capstone 장로교회, 밀알교회, 영락교회에서 영어권, 한국어권 지도자들을 위하여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마치신 지도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동포사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고 또 그러한 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기량을 쌓을 것과 보다 많은 정보 자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를 통한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더이상 한인 교계에서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고 피해자를 침묵시키지 않겠다는 지도자들의 의지로써 오랫동안 기다렸던 희망의 햇불이다.





주요 행사- 기금 모금 만찬회

2004년 10월 30일 한인회 강당에서 여성회 기금마련을 위한 만찬회가 있었다. 한인 2세 사회자로 진행된 행사는 이사들이 직접 연습해 무대에 올린 마임과 다양한 순서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모금된 기금과 자원봉사자, 기부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총 수입액	\$15,887.00
(티켓, 광고, 라플티켓, 경매, 기부)	
총 지출액	\$5,888.95
순 수익	<u>\$9,698.05</u>

일반 기부자(존칭은 생략함)

배화여고 \$110, 본한인교회 \$200, 이지연 \$100, 유태영 \$50, 조성준 \$300, 유정자 \$100, 이재락 \$100, 차상범 \$100, Soonki Schaub \$50, Klara Kim \$200, 신숙희 \$100, 송신자 \$30, 엄아가다 \$50, 이정렬 \$100, 김규문 \$50, Korean Dance Studies Society of Canada \$100, 강춘자 \$20, 총영사관 \$500, 박남순 \$30, 오영림 \$100, 이상철 \$100, 이규희 \$50, 박승환 \$30, 신복실 \$150, Bessie \$50, 안귀란 \$100, 허진 \$50, 전인숙 \$200, 진필식 \$100, 이종민 \$30

물품 기증자

KBA 물 20박스, 서울의류 면이불, 박영화 빵제조기, 이정준 Silver-plated bowl과 Mikara, 박숙훈 body lotion & perfume set와 handed printed sugar & creamer, 안귀란 Japanese Liquor bottle & cup, 최기선 Italian Saute pan, 김조유경 14K 팔지와 여성용 속옷2, 신복실 오븐 토스터, 최성학 주염술과 벽시계, 최경애 scarp book, 김지인 인삼캔디, 김진실 Mixing bowl set, 이기훈 골프액자.



정규 프로그램

- Cash Register Training
Cashier로 일을 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1월부터 3차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대의 금전등록기를 직접 사용하면서 그 기능과 잔돈계산법 등 실질적인 직업 훈련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강사: 오병천 취업상담원
날짜: 2005년 1월 12일, 19일, 26일 오후 2:00
- ESL for setting up Business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을 영어로 대화하며 영어도 배우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도 배우는 일거양득 프로그램.
강사: Carmen Wong
날짜: 2004년 11월 10, 17, 24, 12월 1, 8일
- 10월 시민권 시험 준비반
강사: 이세라 기간: 2004년 10월 6일부터 5회
11월 시민권 시험 준비반
강사: 최정희 기간: 2004년 11월 17일부터 5회
시민권 모의 시험반
강사: 허영임 기간: 2004년 11월 23, 12월 13일
1월(2005년) 시민권 시험 준비반
강사: 최정희 기간: 2005년 1월 28일부터 5회
- 성인을 위한 한글반
12월 한달 방학을 하고 1월부터 새로이 학기가 시작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로 수준별로 3반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컴퓨터 교실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고 싶은 분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이 2월 23일부터 시작되었다.
내용: 기초적인 컴퓨터 익히기, 워드 프로세싱, 인터넷, 이메일 사용법, 자판 연습등.
날짜: 2005년 2월 23, 3월 2, 9, 16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한정된 공간과 컴퓨터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실을 하나 더 늘릴 예정이다.
* 교차로에 나가는 광고 참조.

캐나다 한인 여성회 영문이름 변경에 대해...

회장 보고서

1985년 이래 Korean Canadian Women's Association는 이민 가정의 건강한 이민 생활과 그들의 성공적인 캐나다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일해왔다. 따라서, 한인 동포 사회에 남, 녀를 불문하고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한인 동포사회에 오랜 세월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이름이 "Korean Canadian Women's Association" 라는 이유로 많은 한인들이 KCWA는 여성들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KCWA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캐나다인의 건강이나 사회 복지 체제, 고용 정보, 가정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KCWA를 찾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토론토는 한국에서 최근에 이민오는 이민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KCWA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캐나다 한인 2세들도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KCWA를 잘 모르는 새 이민자와 한인 2세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 역시 KCWA가 여성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4년 1월 8일 임시 총회에서 포괄적인 서비스 이용자를 의미하는 뜻에서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로 단체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름 변경으로 앞으로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의 여러가지 서비스와 프로그램 이용이 향상되고 더 많은 남성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회장 유상희

취업세미나

- “공격적인 취업 노하우” 취업을 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세미나.

강사: Thomas Lee (e-business consulting company 이사)

날짜: 2004년 10월 13일

장소: 한인 여성회 2층 세미나실

- “통역원이 되려면...” 영어와 한글로 통역하는 통역원의 자격과 시험에 대한 정보 세미나.

강사: 하영리
여성회 사무장

날짜: 2004년
11월 17일



정착 세미나

-캐나다의 사회 복지 혜택 이해하기-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정착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인여성회에서는 캐나다 복지 혜택에 대한 이민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날짜: 2005년 3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한인 여성회 세미나실

내용: 캐나다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이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세금 관련 정보, Child tax benefit, 노인 연금, CPP, 저소득층 관련 혜택등.

강사: 김동균 회계사,
오병천 정착 상담원

문의: 캐나다 한인 여성회 정착 상담원
settlement@kcwa.net



사회복지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복지 종류	자격 조건	내용
노인 연금 (OAS)	65세 이상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자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 거주자	만 65세 생일이 되기 1년 전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도 있고 사무실로 전화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음. 만약 65세가 넘었다면 되도록 빨리 신청 해야함. 신청서를 접수시킨 날로부터 11개월 전까지는 소급적용해서 밀린 금액 받을 수 있음. 전화번호 : 1-800-277-9914 http://www100.hrdc.gc.ca/forms/isp3000ke.pdf
소득 보장 보조금 (GIS)	65세 이상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자 저소득인 자 노인 연금 수혜자	노인 연금 수혜자로서 노인 연금의 지급액이 너무 적거나 노인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한 것임. 이 보조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매달 지급되고 노인연금을 받음과 동시에 혜택을 받게 됨. 매년 신청을 해야함.
배우자 보조금 (Allowance)	18세 이후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자 저소득인 자	노인연금 수혜자가 소득 보장 보조금(GIS)을 받을 자격이 되며, 60-64세 사이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의 동거자가 있을경우, 그 배우자 또는 동거자에게 매 달 지급 되는 수당. 이 수당은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매년 신청을 해야함
생존자 보조금 (Survivor's Allowance)	18세 이후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 합법적인 캐나다 거주자 저소득인 자	노인연금 수혜자 사망시 그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자가 60-64세 사이일 경우 주는 보조금. 매년 신청을 해야함

? 위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성회로 전화 주십시오.

Evangel Hall Hair Cut 무료 미용 서비스

자원봉사자 김성애씨(헤어살롱 운영)가 2004년 10월 24일, 2005년 1월 9일 두차례 홀리스들을 위해 머리를 잘라 주었다.

Evangel Hall은 토론토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단체로써 홀리스들을 위한 프로그램중 하나로 무료 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김성애씨 외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최기선, 이철영 명예이사가 15년간 자원봉사자로 여성회를 위해 일하신 노고로 11월 24일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자원봉사자상을 받으셨다. 유상희 회장과 하영리 사무장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그동안 여성회를 위해 애써주신 두 분에게 축하의 박수를 드린다.





기부금 및 자원 봉사 현황(존칭은 생략) (2004년 10월—2005년 2월)

■ 일반 기부자

최기선, 최정현, 이경희, 뽀엘 성결교회 에스더 선교회, 안주영, 강영옥, 이규희, 윤상예, 신복실

■ 2004년 10월 ~ 현재 회원 되신 분

일년회원: 김선자, 우경애, 최정희, 김은자, 유영숙, 서정순, 이순희, 정경희, 구복서, 박애나, 최정희, 고복례

평생회원: 김지인, Sharon Kim, 김진실, 박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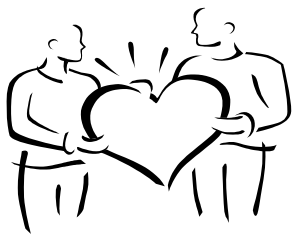
■ 고통분담 기부자

Jai Sook Martin, 영광 교회, High Park United Church, 이종범

■ 자원봉사자

사무실 봉사 - 최연순, 이은경
프로그램 봉사-허영임, 강영옥, 이혜선, 이향배, 이세라, 최정희, Thomas Lee, Carmen Wong, 하여리, 정경애, 오병천, 송귀영, 신복실
기타 봉사- 이영선, 김정실

■ 물건 기부자 - 신복균(rummage sale 할 물건),



여성회 소식

- United Way 새 이민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강영 옥씨가 1월부터 한인회와 공동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새 이민자에게 캐나다 생활의 적응을 돕기위해 슈퍼마켓 견학등 흥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차로나 ALL TV 무료 광고를 통해 행사 계획이 나가고 있다.
- 여성회 새 이사로 사은령(부회계), April Lim, Monica Lee, 안주영씨가 여성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김조유경이사는 개인 사정으로 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 2005년 2월 16일 여성회 이사들이 떡과 과일 등을 준비하여 뉴마켓에 위치한 룻 양로원을 방문하였다. 그동안 매년 고 이상온 전이사님이 떡을 기부하셨었는데 올해는 신복실이사님이 손수 만드신 떡으로 외로운 노인들을 대접하셨다.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
- 한인 사회 봉사회에서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배급한다는 취지 아래 전달받은 쌀과 라면을 여성회 클라이 언트 중 22명에게 전달했다. 주말을 이용해 직접 집집마다 배달을 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사회가 참 아름답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Tel: 416-340-1234
 Fax: 416-340-8114
 Website: www.kcwa.net
 E-mail: kcwa@kcwa.net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명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목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빈곤,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